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4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93. 어린양의 혼인잔치

2014. 10. 12.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8장 공부를 마쳤습니다. 이제 19장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애청자들께서 여전히 기도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문인정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213-905-3641입니다.

[계19:1~4]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2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3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4 또 이십사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1. 목사님, 오늘은 18장부터 이어지는 일곱 개의 노래 중에 마지막 노래에 해당되는 19장 1~10 말씀을 살필 차례입니다. 읽어보니 기쁨의 찬양 같습니다.

답: 그렇지요. 할렐루야 찬양입니다. 일곱 재앙이 끝난 후에 이 찬양의 가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지요. 1~6에 할렐루야가 네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핵심은 창조주요 구원의 주님이신 여호와라 이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ㅣ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으로 할레루야 찬양을 하는데 이유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무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천사와 성도들의 합창으로 보기도 하고, 또 7,8절에 성도들의 노래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18:20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와 선지자들의 찬양에 대한 기록에 비추어 하늘에 해당해 천사라고 풀이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늘이라고 하면 우주 세계의 거민들도 포함된다는 것을 18:20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지구를 창조했을 때 기뻐 노래한 무리들입니다.(욥38:7) 또 계시록 7장에 흰 옷 입은 허다한 구원받은 무리들에 대한 기록이 있지요. 그분들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심은 할렐루야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대상인 여호와라는 칭호는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찬양하는데 루시퍼가 바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과 그 이름의 뜻에 도전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지요. 루시퍼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이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루시퍼의 도전입니다. 그것이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리라고 하며 여호와의 집회 장소인 집회의 산에 자기 보좌를 높이려고 한 행동이지요. 이것은 이사야 14:12~14에 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에게 심판하셨습니다. 즉 자존하신 분으로서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섭리를 하셨는데 그것을 끝까지 거절한 그 세력들에게 돌보시는 손길을 완전히 거두

신 것입니다. 결과로 그들은 완전히 멸절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것이 온 우주에 완전히 드러난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2. 예, 찬양의 핵심이 거기에 있는 것이군요.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군요?

답: 계시록에 할렐루야라는 찬양이 여기에 처음 나오지 않나요? 이 말은 계시록에만 나옵니다. 한글 개역판 성경에 할렐루야가 27회 나오는데, 신약성경에는 계시록에만 나옵니다. 이 말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니까 어쩌면 구약성경에 할렐루야라고 음역하지 뜻으로 번역한 곳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찬양을 하는 데는 성경의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거룩함과 신성을 드러낼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분석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장담은 못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확실히 그렇다고 믿습니다. 루시퍼가 완전히 패배하고 항복합니다. 말씀하나님이 여호와이시며 삼위일명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분임을 공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은 빌립보 2:9~11에 있는 것을 전에 읽었지요. 그래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3. 참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할렐루야라는 찬양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계속해서 설명을 하시지요.

답: 1절에 이 일 후에 라고 했는데, 그것은 18장의 계시를 본 후에 본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이 일 후에 라는 문구는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것은 앞에 본 계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 것입니다. 앞에 본 계시 다음에 본 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적으로 연속적인 사건에 대한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19장 1절부터 기록된 내용은 18장에서부터 기록된 일곱 개의 노래의 일곱 번째 노래이기 때문에 18장 사건의 연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하면서 이어지는 가사가 2절 3절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3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고 찬양합니다. 음녀로 표상된 바벨론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11:18에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벌할 때가 되었다고 했는데, 천연계를 훼손한 것만을 뜻하는 말이 아닌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의 신으로 숭배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상입니다. 그것이 종교이든지 학문이든지 도덕이든지 다 우상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명 여호와 하나님만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거절하고 부인하는 것은 다 땅을 망하게 하는 것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호소하시고 친히 사람되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모든 조치를 다 하시고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의 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심판하신 것입니다. 즉 기다리는 은혜를 거두시고 얼굴을 숨기시고 떠나신 것입니다.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에는 저희에게 화가 미치리로다.”(호9:12)는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하신 심판은 참되고 의롭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거절한 모든 것들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

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잠1:31,32)라는 말씀이 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성질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신명기 32:20을 잘 읽어봅시다.

[신32:20]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의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임이로다.

이 말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상태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겨 보이지 않게 하시면 종말이 오는 것이라고 가르쳐주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라는 노래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한 얼굴을 숨기실 때에, 성도들을 핍박하여 피를 흘린 그것이 바벨론에게로 돌아가게 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렐루야를 노래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런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자비와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고 했습니다. 이 연기가 무슨 연기인가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4. 그렇습니다. 느닷없이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노랫말이 나옵니까? 의아한 생각이 드니까 확실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 그렇지요.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17:16에 바벨론이 불사른다고 했고, 18:18에 바벨론이 불타는 연기를 본다고 한 사실에 의하여 여기에 바벨론이 완전히 불타는 사실을 확인하는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또 14:11에 셋째 천사의 기별 중에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한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그 완전한 집행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어를 직역하면 "그들이 두 번째를 말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녀의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입니다. 우리말 개역으로는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했을 때 무슨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지 느닷없이 이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음녀 바벨론이 타는 연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학자들의 설명은 원에 의하여 합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하는 것이 할렐루야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녀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말까지 포함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두 번째 말했다. 바벨론이 타는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할렐루야."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바벨론이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했다"는 헬라어 "에이레칸 εἴρηκαν"은 완료형으로서 완전히 끝났다고 말했다는 뜻입니다. 바벨론이 불타서 없어지게 된 것은 비극이지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더 이상 대적하는 짓을 하지 못하게 된 사실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클레이 박사는 그의 계시록 강해에서 "이 말은 그 파괴가 최종적인 것이며 영원한 것이어서 결코 다시는 그 폐허로부터 재기하지 못하리라는 뜻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5. 그렇군요. 갑자기 문장에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고 하니까 뭔가 퍼즐이 맞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가졌는데, 연기기 음녀로 표상된 바벨론의 연기라고 해석이 되니까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답: 고맙습니다. 우리 성경에 “그 연기가”라고만 했는데, 사실은 “그 여자의 그 연기가”라고 번역해야 하는데, 우리 성경에 “그 여자”를 빼먹은 것입니다.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하니까 계속 타고 있는 인상을 줍니다만, 이 말에 대한 설명은 언젠가 자세히 했지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기간을 뜻하는 표현이라고 설명한 기억이 있습니다.

6. 예, 구약성경의 “올람”이라는 말이 영원히 라고 번역되었는데, 그것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기간을 뜻하는 말이고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말을 우리성경이 영원이라고 번역했다는 말씀을 했지요.

답: 예, 기억하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요나서 2장 6절을 예로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오래도록(올람) 가두었다고 했는데, 그 오래도록이라는 말이 올람이고 우리 옛 번역에는 영원히 라고 번역한 사실을 말했습니다. 요나가 언제 고기 뱃속에서 나올는지 기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올람은 3일만에 끝났습니다. 즉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처럼 탈 것이 다 타서 더 이상 탈 것이 없을 때까지 타는 연기가 올라간다는 것을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표현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가 되면 연기도 사라지지요. 그런 사실을 말한 것이고 바클레이 박사가 잘 설명했습니다.

7. 허다한 무리들이 부르는 찬양의 노래를 듣고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화답을 하는군요?

답: 예, 4절에 화답창입니다. 그것은 그냥 아멘 할렐루야라고 화답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로 화답할 뿐만 아니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화답합니다. 할렐루야라는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지요. 이들은 언제나 보좌 주위에 있는 존재들인 것을 4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들은 할렐루야로 화답하기 전에 아멘을 했습니다. 앞에 허다한 무리가 찬양한 내용을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보좌에서 음성이 나옵니다. 그것이 5절이지요.

[계19:5]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무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보좌에서 음성이 나온다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어야 할 것인데 내용을 보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음성이 말하는 내용 중에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했기 때문이지요. “우리”라고 번역된 말은 소유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번역하면 “우리의”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하나님께 라고 말할 수 없지요. 그러면 말한 장본인이 누구일까요? 본문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보좌 주위에 있는 어떤 존재가 말했을 것인데, 계시 중에 보고 듣는 요한에게는 보좌에서 나오는 소리처럼 들렸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보좌 자체가 말했을는지 모르지요. 계시록에는 제단이 말한다는 표현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좌가 말한다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복수로 말할 수 있는 보좌 아주 가까이 있는 어떤 존재가 말했을 것입니다. 네 생물이나 이십 사 장로 중에 누군가가 외쳤을 수도 있겠지요. 누가 말했든지 그 내용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과 우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환희의 화답입니

다. 그래서 큰 무리가 외치는 찬양에 이십 사 장로와 네 생물이 화답하고 보좌 주위의 누군가가 또 환성으로 화답합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무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표현은 시113편과 115편을 반영합니다. 즉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시113:1을 인용한 것이고,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무론 대소하고”는 시115:13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은 순교자와 같은 특별한 그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문구인 “경외하는”과 “무론 대소하고”가 믿는 자들의 상황이나 지위 고하, 신앙의 성숙도와 관계없이 보편성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종들을 선지자로 한정하기도 합니다. 계시록에 선지자와 사도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한 곳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문제될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8. 여기 10절까지는 중복적으로 찬양하고 화답하는 장면으로 보이는군요. 6절부터는 또 다른 무리들이 화답하는 장면인 것 같은데요?

답: 예, 그렇습니다. 6~8절은 허다한 무리의 음성 또는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이라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읽읍시다.

[계19:6~8]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7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8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기에 “같고”라는 말이 세 번 나옵니다. 헬라어는 “호스”입니다. 이것은 허다한 무리들의 합창의 웅장함과 장엄함과 멋지게 어울리는 화음까지 함께 묘사하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찬양하는 음성이 삼중으로 묘사되었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누구를 나타내는지 본문 상으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1절에도 허다한 무리의 음성으로 할렐루야 찬양을 했습니다. 6절에 또 허다한 무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1절은 천사들이라고 설명하고 그 찬양에 이십 사 장로와 네 생물이 화답했고 다시 보좌에서 화답하고 이제 또 허다한 무리가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1절보다 더 웅장한 모습입니다. 1절을 천사들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은 6절은 구원받은 성도 전체라고 해석합니다. 그렇겠지요. 그런데 이 노래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어린양의 신부에 대한 묘사입니다. 어린양의 신부가 혼인할 준비가 잘 된 것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하는 사람들은 어린양의 신부가 아니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신부는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찬양하는 허다한 무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문장을 보면 어린양의 신부는 제3자로 보입니다. 즉 합창하는 무리는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들이 어린양의 신부가 준비된 것을 보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4장 5장을 보면 찬양이 보좌 주위에서 점점 퍼져나가서 만물이 찬양하는 광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19장에서도 찬양의 화답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모습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눈으로 본다면 6~8절은 우주 거민들의 찬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들은 지구의 거민들이 말씀하나님이 어린양으로 희생제물이 되어서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기

를 열망했을 것입니다. 우주 거민들은 지구의 사람보다 먼저 창조된 존재들로서 지구가 창조될 때 기뻐 찬양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잖아요.(욥38:7) 우주를 교란하고 지구를 죄에 빠뜨린 장본인과 그 하수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거두어져서 영원히 멸망하고 지구의 구원이 완성되고 지구 거민들이 어린양의 신부로 잘 준비된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소리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들을 때에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이 들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최대한으로 묘사한 문장이지요. 그들의 찬양의 첫 가사가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입니다. 이것은 루시퍼의 주장이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고백적 내용입니다. 루시퍼는 여호와 하나님의 우주 통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반기를 들었던 피조물이었지요. 오늘날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으면 그 자체가 루시퍼와 동조하는 것이 됩니다. 제7일을 창조의 기념일로 인정하지 않고, 영혼불멸설을 믿고 주장하면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것과 오직 그분에게만 영생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루시퍼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되는 것이지요. 우주의 거민들은 루시퍼의 거짓 선전에 좀 의아한 상태로 여호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주시했습니다. 창조주이신 말씀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가시고 루시퍼의 충동에 빠진 사람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모든 것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골1:20)고 분명히 가르쳐주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으로 이제 이 지구에서 루시퍼의 사상을 주관하고 집행할 존재가 영원히 사라졌고 아울러 루시퍼는 결코 변명할 수 없도록 정체가 드러나서 천년기 후에 완전히 소멸될 것입니다. 또 루시퍼로 인하여 창조와 생명의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던 아담의 후손들 중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어린양의 신부로 완전히 준비되어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임하게 된 것을 볼 때 온 우주 거민의 기쁨이 넘치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게 되었으니 이런 찬양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얼마나 감격적이고 장엄한 장면입니까!

9. 목사님 설명을 들으니 6~8의 허다한 무리가 우주 거민이 맞는다고 생각이 되네요. 저도 다수의 설명을 따라 세상에서 구원받은 모든 무리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스스로 어린양의 신부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준비되었다고 자화자찬하는 것 같은 표현이 좀 어색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우주 거민이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 고맙습니다. 19:7,8을 보면 저의 이해가 더 분명해지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계19:7,8)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하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당사자들이 "우리가"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전혀 없어졌다는 것과 또 그 방해하는 세력에게 고난을 받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성도들이 어린양의 신부로 잘 준비되고 신부 치장도 끝내고 이제 예식에 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가 어린양의 신부로 단장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닌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장면은 정말 기쁜 장면입

니다. 이제 어린양의 혼인 기약이 되었습니다. 길고 긴 약혼 기간이 지나고 이제 결혼 날이 이른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은 시편 118:24에서 인용된 말로 설명합니다. 읽어 봅시다.

[시118:24]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고맙습니다. 이 구절은 신약성경에 두 번 인용되었는데, 여기가 그 한 번이고 다른 것은 예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5:12입니다. 11절부터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5:11,12]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제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혼인 날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행1:6,7)

10. 그런데 목사님, 약혼 기간이라고 했습니까?(예.) 약혼 기간도 있었습니까?

답: 루시퍼와 그의 세력이 이 세상에서, 또 온 우주에서 소멸되고 지구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재림하시는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 잔치에 들어가기까지의 시간은 약혼 기간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신랑을 기다리는 상태로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사실을 예수께서는 혼인잔치 비유로 암시하셨지요.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기름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 권고하시고 예복을 잘 갖추어 입도록 하셨지요. 아마도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으로 미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11. 시간을 보니 그러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혼인잔치에 대한 사실을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계시록의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반드시 몰락하고 소멸한다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주시고 성도들이 최후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도 확실히 가르쳐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참된 성도들이 되어서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잘 예비 된 신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순간마다 지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